"그 라벨, EU에서 글자 높이가 몇 mm여야 하는지 답할 수 있으십니까?"

EU 식품 표시·광고 실무

제품 라벨부터 온라인 상세페이지까지

제품·성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의무표시 작성 → 라벨 크기·배치 실측 → 광고문구 검토 →
온라인 상세페이지 대조 → 회원국별 추가요건 확인까지,
EU 수출 식품·보충제 기업을 위한 라벨·광고 실무

교육 핵심 한 줄

EU에는 미국의 21 CFR Part 101 같은 단일 조문집이 없습니다. FIC 1169/2011, 영양·건강강조표시 규정, 보충제 지침, 개별 시행규정, 집행위원회 해석자료, 회원국 국내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흩어진 요건을 **실제 라벨 작업 순서에 맞춰 정리해, 제품 사양서와 라벨 시안으로 EU 판매용 라벨과 상세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게 만드는 1일 실무과정**입니다.

Ⅰ. 왜 지금 이 교육이 필요한가

EU는 문구뿐 아니라 위치와 크기까지 정해 둡니다

미국은 PDP와 IP패널을 기준으로 어떤 정보를 어디에 넣을지 설명합니다. EU에는 이에 대응하는 단일한 패널 체계가 없습니다. 대신 같은 시야, 최대 표면적, 글자 높이, 가독성 같은 규칙을 조합해 라벨을 판단합니다.

FIC Art.9(1)에 열거된 주요 의무표시사항은 포인트가 아니라 소문자 x 높이로 크기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1.2 mm이고, 포장 최대 표면적이 80 cm^2 미만이면 0.9 mm입니다. 일부 추가 의무문구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디자이너에게 "8포인트 이상"이라고 전달하면 안 되고, 라벨 시안에서 x 높이를 직접 재야 합니다.

상대적인 크기 규칙도 있습니다. 제품명 가까이에 표시하는 대체성분 문구는 제품명 x 높이의 75% 이상이어야 하고, 주원료 원산지 정보도 일정한 경우 식품 원산지 표시 x 높이의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표시가 커지면 함께 커지는 구조라, 이 규칙을 모르면 디자인을 두 번 고칩니다.

번역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영양성분표입니다. EU는 나트륨이 아니라 소금으로 표시하고 나트륨 값에 2.5를 곱해 환산합니다. 100 g 또는 100 ml 기준 표시가 원칙이라 1회 제공량만 적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는 kJ과 kcal을 함께 적고, 항목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재료 함량 표시도 다릅니다. 제품명이나 이미지로 특정 원재료를 강조하면 함량 퍼센트 표시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라벨에는 없는 구조라 한국 제품에서 자주 빠집니다. 알레르겐은 원재료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 안에서 다른 원재료와 명확히 구별되게 표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거가 여러 규정과 자료에 흩어져 있습니다

EU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칙, 회원국 전환법을 확인해야 하는 지침, 그리고 EU 공통규정이 없는 영역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첨가물과 향료는 EU 목록에서 해당 식품군과 사용조건까지 확인합니다. 반면 효소는 EU 목록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판매국 국내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 성분을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성분에 따라 다른 곳에서 끝납니다. EU 규정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판매국 기준으로는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환경성 표현 규제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같은 표현에 대해 회원국이 마련한 전환조치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없는 포괄적 환경 표현, 자체적으로 만든 지속가능성 라벨, 탄소상쇄에 근거한 표현에 제한이 생깁니다. 지침이므로 실제 요건은 판매국 전환법에서 확인해야 하고, 기존에 인쇄해 둔 포장과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판매국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건강강조표시는 승인된 문구 안에서 고릅니다

EU 건강강조표시는 승인된 문구와 그 사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구를 바꿔 쓸 때도 핵심 의미를 유지해야 하고, 경과조치 같은 별도 경로가 있으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물성분 관련 표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EU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평가가 보류된 식물성분 건강강조표시를 "목록에 있으니 쓸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유형과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실무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현재 기준과 어긋납니다.

온라인에서는 점검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EU에서 원격 판매를 하면 구매가 완료되기 전에 날짜를 제외한 의무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는 표시규제와 광고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상품명, 썸네일, 불릿, 상세 이미지, 배너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리뷰의 진정성, 인플루언서 광고,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별도 의무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물리 포장의 글자 크기 규칙이 웹페이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도 적용되는 규칙과 물리 포장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구분하지 않으면 과잉 대응하거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빠뜨립니다.

판매국까지 내려가야 정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언어, 보충제 사전신고, 비타민·미네랄 상한, 사용 가능한 식물성분 목록은 EU 차원에서 조화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맞춘 라벨이 프랑스에서 그대로 통하지는 않지만, 회원국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이력이 있으면 상호인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판매 이력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EU 라벨 규정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질문은 "이 항목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라벨이 그 요건을 충족했음을 무엇으로 확인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항목별로 답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드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입니다.

Ⅱ. 이번 교육의 방향 - 무엇이 다른가

이 교육은 EU 식품법을 개괄하는 세미나나 조문 해설이 아닙니다. 제품 사양서와 라벨 시안을 놓고 의무표시 항목을 채운 뒤, 실제 치수를 재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까지 찾아내는 실무과정입니다.

구분	핵심 내용
기존 인식	FIC 1169/2011의 의무표시 항목을 확인하고 한국 라벨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EU 라벨을 만들 수 있다.
실제 리스크	제품 적격성·판매국·표시단위·글자크기·배치·원재료·영양표·광고문구·온라인 판매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문구 하나가 맞아도 라벨 전체나 온라인 페이지가 부적합할 수 있다. 표시 책임주체는 제품이 누구의 명의로 판매되는지와 EU 설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라벨 재작업·통관 지연·온라인 페이지 수정 비용은 한국 수출기업에도 직접 돌아온다.
교육의 초점	적용규정 판정 → 라벨 크기·배치 확인 → 의무표시 작성 → 영양표 산출 → 광고문구 검토 → 온라인 상세페이지 대조 → 최종 승인의 순서로 실제 작업 흐름을 익힌다.
최종 목표	수강생이 자사 제품에 EU 라벨 최종 점검표와 온라인 상세페이지 점검표를 적용해 누락·수정·추가 항목을 스스로 판정하고, 외부 디자이너·번역사·컨설턴트에게 정확한 작업지시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교육의 5가지 차별점

1. 규정을 조문 순서로 읽는 대신 제품 분류 → 라벨 단위 → 라벨 시안 → 문구 → 영양표 → 광고 → 온라인 순서로 연결합니다. 실무자가 실제로 작업하는 순서가 곧 교육 순서입니다.

2. 어디에 얼마나 크게까지 다룹니다. 시야, 최대 표면적, 글자 높이, 소형포장 기준, 상대적 크기 규칙, 오버라벨과 떼어내는 라벨 같은 실제 라벨 시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독립 모듈로 배정하고 실습까지 진행합니다.

3. 라벨과 광고를 한 흐름으로 봅니다. 영양·건강강조표시를 쓰면 라벨에 무엇이 추가되는지, 제품명·이미지·후기·상세페이지가 어떤 표현을 만드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라벨은 품질팀이, 상세페이지는 마케팅팀이 따로 만드는 구조가 왜 무너지는지 다룹니다.

4. 근거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 가르칩니다. 조문, 시행규정, 판례, 집행위 해석, 데이터베이스, 회원국 법령, 참고 목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로 판정을 닫을 수 있고 어떤 자료로는 닫을 수 없는지를 등급으로 나눠 표기합니다.

Ⅲ. 이 교육에서 얻어가는 것

(1) 수강 직후 즉시 활용

- EU 표시규정 확인표 — 제품별로 어떤 EU 규정과 회원국 규정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
- 제품·성분 사전점검표 — 일반식품 / 보충제 / 특정용도식품 분류, 성분 사용 가능 여부, 개별 품목규정 확인
- EU 라벨 최종 점검표 — 의무표시 전 항목을 한 장에서 확인
- 라벨 치수·배치 실측표 — 최대 표면적·x 높이·같은 시야를 100% 크기에서 확인
- 특수·소형포장 판정표 — 80 cm^2 / 25 cm^2 / 10 cm^2와 재사용 유리병의 차이를 한 장에서 비교
- 원재료·알레르겐·교차오염 문구·함량 표시 판정표 — 의무 알레르겐 표시와 교차오염 문구의 경로 구분 포함
- 원산지·주원료 원산지 판정표 —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과 75% 상대크기 규칙 확인
- EU 영양성분표 작성표 — 100 g 기준 환산, 에너지 계산, 소금 환산, 허용오차·반올림 확인
- 보충제 표시 비교표 — 일반식품 규정 중 그대로 적용되는 항목과 보충제 지침을 따로 볼 항목을 구분
- 광고문구 허용·수정·삭제 판정표 — 문구별로 사용 가능 여부와 수정 방향을 정리
- 승인문구 검색 워크시트 — 승인된 문구와 사용조건을 찾고 변경 가능 범위를 확인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점검표 + 실물 라벨·온라인 대조표
- 환경성 표현 점검표 — 문구별 사용 가능 여부를 신호등 방식으로 확인
- 회원국 추가 확인경로표 — 언어·신고·성분 상한·식물 목록을 국가별로 어디서 확인하는가
- 최종 라벨 승인 체크리스트 — 인쇄 승인 전 최종 확인 양식

(2) 수강 후 사내에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산출물

- 자사 EU 수출 제품의 의무표시 항목별 작성 결과와 미확정 항목 목록
- 현행 라벨의 실측 결과와 수정 우선순위 — 무엇부터 고칠 것인가
- 제품별 광고문구 판정 기록과 대체문구안
- 상세페이지와 실물 라벨의 불일치 목록
- 판매 대상국별 추가 확인 항목과 담당·기한
- 라벨 승인 절차와 변경 시 재검토 기준

(3) 사고방식의 전환

수강 전후의 가장 큰 차이는 질문입니다. "이거 EU에서 써도 되나요?"에서 "이 항목은 어느 조문에서 답이 끝나며, 우리 라벨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무엇으로 확인했는가?"로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면 디자이너에게 줄 사양이 명확해지고, 수입자에게 확인받을 일과 사내에서 판단할 일이 나뉩니다.

Ⅳ. 누가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들으셔야 합니다

- 국내용 또는 미국용 라벨을 번역해 EU 수입자에게 보냈고, 수입자가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우
- EU 수입자나 바이어가 라벨 수정을 요구했는데 어느 조문 때문인지 설명받지 못한 경우
- 디자이너가 최소 폰트가 몇 pt 인지, 앞면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경우
- 라벨 디자인 시안을 받았지만 글자 크기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본 적이 없는 경우
- 상자·파우치·병의 최대 표면적이나 소형포장 기준을 실제 포장에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
- 제품명에 원료명이 들어가거나 원료 이미지를 크게 쓰면서 함량 퍼센트를 적지 않은 경우
- 영양성분표를 국내 표기에서 그대로 옮겼고 나트륨·소금 환산과 100 g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포장 전면에 태극기, 한글, 한국 이미지를 쓰면서 주원료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건강기능식품을 EU 에 보충제로 내보내면서 어떤 표시가 의무이고 어떤 표현이 금지인지 정하지 못한 경우
- 홍삼·발효물·식물추출물을 쓰면서 EU 에서 그 성분을 쓸 수 있는지, 관련 표현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경우
- 첨가물이나 효소를 쓰면서 EU 목록만 보고 판단했고 판매국 국내법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아마존이나 자사몰로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상세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경우
- 친환경, 지속가능, 재활용 가능 같은 표현을 포장이나 상세페이지에 쓰고 있는 경우
- 독일, 프랑스 등 특정 회원국 비중이 크고 그 나라에서 추가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 경쟁사나 소비자단체로부터 표시 관련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받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EU 라벨을 외부 컨설팅사나 디자인사에 맡기고 있지만 사내에 최종 승인 체크리스트가 없는 경우
- 판매국 추가, 배합 변경, 공급사 변경, 포장 사이즈 변경 때 기존 라벨을 다시 검토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 EU 수출기업에 원료나 부재료를 납품하며 고객사가 요구할 표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직무로는 RA·품질·연구개발·상품기획·구매·수출영업·마케팅·패키지디자인·온라인몰 운영 담당자가 해당합니다.

Ⅴ. 교육 진행 방식

공통 예제로 진행하고 양식은 가져갑니다

실습은 모두 강의장에서 나눠 드리는 공통 예제와 EU 공개 자료로 합니다. 자사 자료를 가져오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품목과 보유 문서가 달라 진행 속도가 크게 벌어지고, 실측과 대조에는 강의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습에 쓴 판정 기준과 워크시트는 그대로 배포합니다. 회사에 돌아가 자사 품목에 같은 순서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제는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로 겪는 유형으로 구성합니다.

교육에서 활용할 공통 예제

공통 예제	실습 포인트
P1 조미김 (스낵형)	소형포장 면제 판정, 첨가물 표시, 최대 표면적 산정, 미네랄 함량 관련 국가별 취급
P2 즉석면 (라면)	알레르겐 강조와 교차오염 문구 구분, 함량 강조 표시, 복합원재료 분해, 주원료 원산지, 영양성분표 전 과정
P3 인삼·비타민 복합 보충제	제품 분류와 성분 적격성, 보충제 의무표시와 경고문구, 식물성분 관련 표현 판정, 회원국 사전신고
라벨 시안 (상자·파우치·병)	100% 크기 출력본에서 x 높이·최대 표면적·같은 시야 실측
EU 온라인 상품페이지	구매 전 제공정보 점검, 실물 라벨과 수치·문구 대조
환경성 표현이 들어간 포장	신호등 판정과 대체문구 작성

실습은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예제 제품이 일반식품인지 보충제인지, 성분을 EU에서 쓸 수 있는지 판정한다
2. 의무표시 항목을 빈 양식에 채운다
3. 라벨 시안을 100% 크기로 출력해 x 높이와 최대 표면적을 잰다
4. 같은 시야에 들어와야 하는 항목이 실제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한다
5. 원재료·알레르겐·함량 강조 표시를 판정한다
6. 영양성분표를 국내 성적서에서 EU 서식으로 변환하고 환산·반올림을 검증한다
7.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문구와 위치를 정한다
8. 광고문구를 한 줄씩 허용·수정·삭제로 판정한다
9. 상세페이지를 실물 라벨과 대조해 불일치를 찾는다
10. 판매 대상국을 정하고 추가로 확인할 항목을 목록화한다

진행 비중

강의	실습	Q&A
55%	25%	20%
규제 구조 + 표시요건 + 판례·해석자료 읽는 법	공통 예제 기반 작성·실측·검토	현장 사례 질의

※ 위 비중은 기준값이며, 강의 진행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강의 커리큘럼 (1일, 8시간)

세부 시간 배분과 휴식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	프로그램
09:30~09:45 **(15분)**	**Opening — 오늘 무엇을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는가** · 교육 전체 지도와 배포 도구 안내 — EU 라벨 최종 점검표, 실측 양식, 영양표 작성표, 광고문구 판정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점검표 · 규칙 / 지침 / 시행규정 / 판례 / 집행위 해석 / 회원국 규정의 법적 지위 차이 — 하루 종일 적용할 확인 원칙
09:45~10:30 **(45분)**	**Module 1. EU 표시규제 전체 구조와 라벨 착수 전 점검** · FIC를 중심으로 영양·건강강조표시 규정, 보충제 지침, 개별 시행규정, 회원국 규정이 어디서 연결되는가 · 일반식품 / 보충제 / 특정용도식품 분류와 식품·의약품 경계 · 성분을 EU에서 쓸 수 있는가 — 첨가물·향료는 EU 목록에서, 효소는 판매국 국내법에서 끝난다 · 신소재식품·GMO·유기농 등 라벨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할 별도 체계 · 판매국을 먼저 정해야 언어·신고·성분 상한·식물 목록의 결론이 닫히는 이유 · 어떤 순서로 찾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 조문, 탐색 도구, 승인 목록, 회원국 기관
10:30~11:40 **(70분)**	**Module 2. EU 라벨의 크기·배치와 실측 — 어디에, 얼마나 크게, 어떻게 보여야 하나 【핵심 Ⅰ】** · 표시 적용단위 — 판매단위·내포장·멀티팩·외포장·사업자간 거래 단계의 구분 · 시야 세 가지 — 한 시점에서 읽히는 표면, 첫눈에 보이는 주요 시야, 함께 보여야 하는 묶음 · 미국 PDP·정보패널 체계와 무엇이 다른가 · 최대 표면적 판정 — 상자·파우치·캔·병, 조문으로 정해진 것과 해석에 맡겨진 것 · 글자 높이 1.2 mm와 0.9 mm, 80·25·10 cm² 기준, 포인트 크기와 다른 이유, 적용 대상의 범위 · 가독성 — 서체·자간·행간·색·대비·재질, 의무정보를 가리면 안 되는 범위 · 상대적 75% 규칙 두 가지, 한국 포장 위 오버라벨과 떼어내는 라벨 [실습] 공통 포장 시안을 100% 크기로 출력해 최대 표면적과 글자 높이를 측정하고 적합 여부와 수정 필요 항목 구분
11:40~11:50	**휴식**

시간	프로그램
11:50~13:05 (75분)	**Module 3. 의무표시 완성 — 제품명부터 원산지까지【핵심 ㅍ】** · 제품명 — 법정·관용·설명적 명칭의 순서, 브랜드명이 식품명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가공상태와 대체성분 표시 · 순내용량·고형량·날짜·보관조건·사용방법·로트·책임사업자와 수입자 · 원재료 목록 — 중량순, 물과 농축·건조 원료, 복합원재료, 첨가물·향료·효소, 캐리오버, 나노 · 알레르겐 — 14종, 강조 방식, 목록이 없는 경우, 가공보조제, 교차오염 문구와의 법적 경로 차이 · 함량 강조 표시 — 제품명·이미지·강조표현이 원재료 함량 표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예외 · 원산지 — Korea·국기·한글 이미지, 주원료 원산지 적용 조건, 같은 시야와 75% 표시방법 · 성분이 부르는 추가 문구와 신소재식품·GMO·조사처리·급속냉동 등 특수표시 확인법 [실습] 즉석면 라벨을 항목별로 분해해 누락·수정·추가사항 표시
13:05~14:05	**점심**
14:05~15:05 (60분)	**Module 4. 영양성분표시 작성 실무【핵심 ㅍ】** · 적용대상과 면제, 보충제는 별도 체계로 빠진다 — 면제 목록과 영양·건강강조표시 사용 시 다시 적용 · 의무 항목 구성·순서·단위, 100 g / 100 ml 기준, kJ·kcal 병기, 표 형식과 한 줄 형식 · 지방·포화지방·탄수화물·당류·단백질 — 한국 수치와 달라지는 지점 · 소금 표시 — 나트륨 환산, 자연 함유분, 분석값과 계산값의 사용 · 비타민·미네랄을 표에 넣을 수 있는 조건, 기준치 비율, 1회 제공량과 조리 후 값 · 허용오차와 반올림, 영양·건강강조표시를 쓰는 제품의 수치 관리 · 보충제의 일일섭취량 기준 성분 함량 표시 [실습] 국내 시험성적서 값을 EU 영양성분표로 변환하고 소금 환산 검증
15:05~16:05 (60분)	**Module 5. 영양·건강강조표시와 광고문구 검토【최핵심】** · 모든 표현의 상위 필터 — 오인 금지와 질병 예방·치료 표현의 경계 · 영양강조표시 — 조건표를 읽고 우리 제품 수치와 대조하기, 비교 표현의 추가 조건 · 건강강조표시의 세 경로와 승인 문구·사용조건을 목록에서 읽는 법 · 문구를 바꿔 쓸 수 있는 한계, 함께 적어야 하는 정보, 일반적 건강 표현의 허용 조건 · 제품명·브랜드명·슬로건·이미지·전후 비교·사용후기가 표현을 만드는 경우

시간	프로그램
	· 식물성분 관련 표현 — 경과조치 판정 흐름과 2025년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범위 · 영양·건강강조표시를 쓰면 영양표시에 무엇이 추가되는가, 근거 파일 구성 [실습] 실제 문구를 허용·수정·삭제로 분류하고 대체문구 방향 설정
16:05~16:15	**휴식**
16:15~17:10 **(55분)**	**Module 6.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회원국 추가확인** · 원격 판매의 구매 전 제공정보와 배송 시점 정보, 온라인에도 적용되는 규칙과 물리 포장에만 적용되는 규칙의 구분 · 상품명·썸네일·패키지 이미지·불릿·상세설명·추가 콘텐츠·배너를 한 페이지로 점검 · 이미지에만 있는 의무정보, 확대해야 읽히는 정보, 실물 포장과 온라인 수치·표현의 불일치 · 리뷰·후기·인플루언서 콘텐츠와 광고표현의 연결,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별도 의무 · 보충제 판매국별 언어·사전신고·성분 상한·식물 목록 확인경로 · 환경성 표현 — 2026년 9월 적용 지침의 구조, 판매국 전환법 확인, 유기농 표시와의 경계 [실습] 상세페이지를 실물 라벨과 대조해 수정 우선순위 작성
17:10~17:30 **(20분)**	**Closing — 승인 절차를 사내 프로세스로 만들기** · 의무표시 작성 → 영양표 → 광고문구 검토 → 라벨 시안 확인 → 온라인 대조 → 최종 승인 순서 정리 · 배합·공급처·규격·포장 크기·제품명·광고문구·판매국·법규가 바뀌었을 때 다시 검토해야 하는 기준 · 배포 양식의 사내 적용 순서와 다음 제품으로 확장하는 방법, 수료증 수여

Ⅶ. 강사 소개

이주형 박사

- 식품수출 전문 컨설턴트 / 수출 마스터클래스 선임강사
- FCRS 규제과학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광화문 전문위원
- EU 식품 표시·광고·포장 규제 검토 및 수출기업 실무 자문 수행
- EU PPWR·식품접촉재료 규제 자문 다수
- 미국 FDA 원료·표시·광고 규제 자문 다수
- 식품음료신문 칼럼/수출 기획 연재
- 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전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

Ⅷ. 수강 정보

교육 일시	2026년 11월 27일(금) 09:30~17:30
교육 장소	삼경교육센터 8층 (서울역 14번 출구)
교육비	400,000원 (VAT 포함)
정원	40명 / 워크숍형 운영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식품음료신문 홈페이지 (www.thinkfood.co.kr)
문의	02-3273-1114 / edu@thinkfood.co.kr

수강 신청 ▶ www.thinkfood.co.kr | 문의 ▶ 02-3273-1114

주최 ▶ 식품음료신문 / FCRS 규제과학연구소